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흥겨운 佛心 세계의 잔치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연등축제는 올해도 신명나는 한마당 잔치로 펼쳐졌다. 5월 3일 전야제의 화려하고 신비롭 나는 무대로 시작된 연등축제는 4일 하루 종일 서울 종로 조계사 앞 우정국로를 가득 채운 시민과 불자 외국인 관광객으로 열기를 더해갔다. 특히 올해에는 동남아 불교국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활발했으며 각국의 불교전통과 풍물을 알리는 행사도 불자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동대문 축구장에서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등축제는 어울림과 나눔의 한바탕 잔치판이었다. 잔치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봉축법요식과 제등행렬 대동한바탕으로 이어지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 연등축제는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라는 범불교적 여망을 불자들의 삶으로 회향하는 흥겹고 뜻 깊은 잔치였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